

시골 작은 학교 오케스트라, 예술제서 금상

나주시 다시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양악·국악 중주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제68회 호남예술제 중창, 중주대회가 개최됐다.

2013년도에 학생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다시 초는 방과후 과정으로 약 10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초청 공연 및 전남예술교류페스티벌에 꾸준히 참여해 양악과 국악을 퓨전한 색다른 오케스트라를 선보여왔으며, 전국대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수상을 한 것은 오케스트라

다시초, 제68회 호남예술제 금상 수상



창단이라며 처음이다.

이번 수상은 양악·국악 오케스트라를 하고 방과후 교육과정으로 다년간 기초부터 운영해 초등학교 단일팀으로서 입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로 작은학교도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최나린 학생은 “첫 대회라 많이 맬리고 긴장됐지만 함께 연습한 지휘자선생님, 친구들과 즐겁게 즐기면서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지휘자 최영미 교사는 “아이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분위기가 좋아 앙상블의 하모니가 잘 이뤄졌고 교장선생님 및 담당선생님, 방과후 악기 강사선생님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해주셨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장은 “오케스트라를 10년간 운영하며 다양한 공연에 참여해왔는데 학생들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의 결실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쁘고 학생들이 자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성준 기자

포토뉴스



박주용 케이씨(주) CEO, 광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광주시는 영암 대불산단에 소재한 케이씨(주)의 CEO 박주용 총괄부사장이 5월 31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주용 CEO는 “각종 지원정책으로 종소·중견기업 육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호남 중심도시이자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는 광주시를 응원하고자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순천경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교통안전 캠페인 순천경찰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월 31일 순천 조례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등 57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순천=조순기 기자

시교육청, 예산절감 기여 직원 성과금 지급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 승소 11억2천만 원 수입 증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담당자에게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총 4건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자체 심사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26일 최종적으로 사업 2건(기여자 5명)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선주 기자

특히 행정예산과는 피고인 동구청장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최종적으로 2심 승소를 이끌어 광주계립초 총 촉재원 11억2000만 원의 수입을 증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배수로 공사비로 8236

만 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학교 자체

적으로 1222만 원을 들여 전문가 집

단과 협조·연구해 문제를 해결했

다. 이를 통해 7014만 원 예산을 절

감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선

정됐다. /조선주 기자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9월8일까지 접수

광주학생 독립운동기념회 관이 오는 1일 학생 독립운동에 관한 관심 제고와 실천적 역사의식 확대를 위해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 관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는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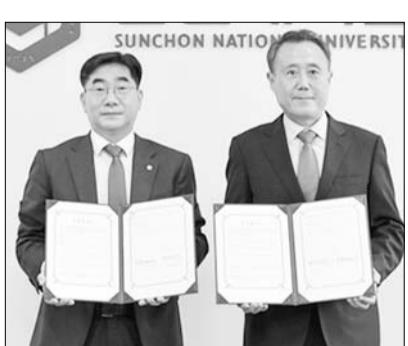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을 상징하는 113초의 제한 시간 내에 학생 독립운동 정신을 표현하는 대회이다.

공모 마감은 오는 9월8일까지이며 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조선주 기자

순천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업무협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아침밥 사업 지원 등 맞손



순천대학교는 지난달 30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직접 순천대를 방문한 가운데 양 기관은 △농립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3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의 상호지원 및 협력 방안 마련 △기후 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촉진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은 순천대가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해 학생 1인당 1000원을 추가 지원해 더욱 질 높은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힘을 보태며, 순천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동 연구 분야 발굴 및 기자재 공동 활용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활기를 떨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 연구원의 소중한 인연을 계기로 향후 지역의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연구와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대는 16일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0명의 재학생에게 쌀 중심의 일반식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조준익 기자

제9회 중마동민의 날 행사 성료

4년여 만에 동민 노래자랑·체육행사로 동민 화합



광양시 중마동은 동민들의 큰 화합과 동참으로 지난달 27일~28일 이틀간 제9회 중마동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중마동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광양시 행복도시 1번지 중마동!’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5월 27일 시청 앞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식전 공연, 동민 노래자랑, 초대 가수 공연, 불꽃놀이, 경품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동민 노래자랑은 11명의 참가자 중 ‘사랑의 경계선’을 부른 정기용 씨

가 1위를 수상했다.

28일에는 서동용 국회 의원,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과 중마동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마동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동민 체육대회 및 화합 한마당이 마동 균린공원 운동장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지역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활동에 애쓴 강정훈 씨가 중마동민 상을, 주민과 체육회의 화합을 위해 힘쓴 이과연, 임근성 씨가 공로패를 수상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무안초 핸드볼부, 전국소년체전 동메달

창단 이후 첫 메달 수상…초등 핸드볼 신흥 강자 ‘우뚝’



무안초등학교 남자 핸드볼부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동메달 수상으로 학교와 전남교육의 명예를 드높였다.

무안초 남자 핸드볼팀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시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남자부 동메달을 수상했다.

무안초 남자 핸드볼팀은 2014년 무안초 남자팀 창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남자팀은 2022년 4월 제78회 전국 종별핸드볼선수권 대회 3위, 2023년

2월 제1회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 초등핸드볼대회 준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초등남자 핸드볼팀의 신흥 강자로 우뚝 섰다.

박해선 감독교사는 “학생들이 좀 더 마음을 모아 훈련과 경기에 임한다면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거두며 ‘우뚝’(우리들의 행복한 순간)’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형우 교장은 “핸드볼선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흘려며 즐겁게 운동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말했다.